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06

2014. Vol 104

기획특집 | FTA시대, 한우산업 발전모색 전국순회 토론회 **스페셜 칼럼** | 한우114 직거래장터
포커스 | 농업수입보장보험 기대효과 **이슈** | 한우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개선방안

CONTENTS

04

08

18

19

03 **명사초청 메시지**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04-06 **기획특집**
FTA시대, 한우산업 발전모색
전국순회 토론회

07 **알려드립니다**
한우농가 특집 '도전 골든벨'

08-09 **스페셜 칼럼**
한우 소비가격 경쟁력 높이는
'한우114 직거래장터'

10-11 **포커스**
농업수입보장보험 기대효과

12-13 **이슈**
한우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개선방안

14-1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미경산우 사양관리
2. 여름철 한우 사양관리
3. 사료관련 질의 응답

18-19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20-21 **관측&통계**
6월 한우 수급동향과 전망

22 **Bravo! Life!**
알아두면 유용한 SOS 긴급전화번호

23 **애독자코너**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품 제10권 통권 제104호 **발행일** 2014년 6월 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_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 (서초동) 케피아회관 3층 기획총무부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2층 홍보마케팅부 교육조사부 Tel : 02-522-3607~8 Fax : 02-522-4314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_서울시 서초구 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 · 전재할 수 없습니다.

명사초청 메시지 박용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민 안심 먹거리 생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한우농가 적극 협조 부탁

지난 5월 25일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으며, 더불어 '광우병(BSE) 위험무시국' 지위를 인정받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구제역은 2010년 11월 발생이후 만 3년 5개월 만에, BSE는 2010년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 받은 지 만 4년 만에 이룩한 성과입니다.

또한 지난 5월 26일에는 15년 만에 대미 삼계탕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까다로운 식품 위생관리기준을 갖춘 미국시장에 진출한 것은 향후 캐나다와 EU 등 거대시장에 대한 청신호이며 머지않아 우리 한우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광우병 위험무시국 지위 획득', '대미 삼계탕 수출 재개' 이외에도 유제품 중국 수출 등 어느 하나 만만한 과제는 없지만, 민간(농가), 기업, 정부 등 모두가 정해진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국민이 행복한 청정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검역본부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한우산업발전대책 마련위해 한우농가의 의견수렴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생산비 절감방안 모색

한우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시급

각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확대로 대외 경쟁압력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한우산업은 수입육과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가의 사육심리가 불안정한 가운데 생산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값의 인하방안 모색 및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도 한우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해 수렴된 농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FTA 피해 대책 마련 시급

한우와 관련된 FTA는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FTA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및 예산지원,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추진 등 현실적인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을 종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95%로 완화하고, 보전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가격을 FTA 발효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화폐가치(물가상승 등)를 반영한 가격에 100분의 95을 곱해 산출토록 요구했다. 관세철폐에 따라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전기간도 현행 10년(2021년 6월 30일까지)보다 더 연장해야 하며 수입기여도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가축뿐만 아니라 실제 폐업 시 보상효과가 있는 축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서둘러야

최근 환경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대책요구도 거셌다. 전체 축사의 약 22%가 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 불법 증·개축을 포함할 경우 전체 축사의 50%이상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축사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확대 적용하며, 한시적으로 8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천의 한우농가는 "건폐율 등 문제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선 요구

한동안 한우가격의 하락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우농가의 폐업이 속출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의 제도적 소득 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농가의 의견이 많았다. 한 농가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보험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변경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축산경영과장은 "마릿수과잉상태에서 생산안정제를 진행할 경우 5년 이상 불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변경했다"며 2년이 지난 현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사를 밝혔다.

사료가격 인하 등 생산비 부담 경감 방안모색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에 대한 절감방안도 강구됐다.

김종구 과장은 "사료비 절감대책으로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 유통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판매하고 있는 배합사료가 고영양·고효율이라는 지적에 따라 영양성분 기준을 제시하고 사료비 절감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한우농가들은 즉각적인 사료값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율, 기름, 옥수수 등 가격이 하락해 올 초부터 사료가격을 인하할 수 있어 농·축협에 사료인하를 촉구했지만 인하하지 않았다. 이에 사료가격 인하를 위한 집회, 불매운동 등을 통해 농가의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더 나아가 생산자 단체가 직접 사료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생산자 단체가 직접 사료공장을 운영하면 농가를 위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사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이렇게 판매되는 가격은 다른 사료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 농가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료가격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원활한 조사료 생산을 위해 간척지·4대강 부지의 조사료 생산부지 요청 및 조사료 등급제, 사료원료 물류기지 신설 등을 요구했다.

유통구조, 저렴하고 다양한 한우브랜드 확보해야

한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가격연동제 확대, 정육점형 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출하예약제 폐지 등에 대한 건의가 잇따랐다. 산지와 소비지의 연계를 강화해 한우 유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에 대한 불신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

히 생산자가 직접 유통·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정육점형 식당의 부가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부과세 면세항목에 생산자단체나 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정육점형식당과 식육즉석판매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소비지에서의 직거래판매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판매차량의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기 어려워 사용이 원활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정부주도로 대기업 구내식당 한우 급식 활성화를 요구했다.

농협의 출하예약제와 관련해 김홍길 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은 "6개월 이상 출하실적이 없거나 농협 이용실적이 낮은 농가의 경우 사실상 예약물량으로 배정받기 어려워 농가 편의를 위한 제도가 도리어 농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폐지하거나 성수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농가가 많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 잇따라

그동안 축산농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우선 세법 개정으로는 농업(축산업)은 영농상속 공제만 가능하며, 영농상속 시 농지, 초지만 영농공제대상이다. 이에 한우협회는 영농상속, 가업상속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영농상속 시 사업용 자산(축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목장용지, 축사 및 관련시설 등의 부동산, 기계장치, 생축자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농지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목장용지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축장이 산업용 전기를 부과하고 있는데 농업용 전기로 전환해 도축비를 경감하고, 해체수수료 및 상장수수료의 인하도 요구했다. 제도개선과 관련 가축시장 개설법을 개정해 생산자단체(한우조합)도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친환경축산인증제 개선 및 생산자단체의 정책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조금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 구제역 백신의 전면 무상공급 및 대가축 수의사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농가들은 이 같은 대책마련을 위해 FTA로 인해 축산부문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수혜산업이 피해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이득 공유제의 시행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고 강조했다.

한우산업발전대책, 예산 마련이 관건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순회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한다면 수정작업 완료 후 국회토론회를 비롯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관련예산 등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한·호주-캐나다 등과의 FTA 체결 등에 따라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발표시기에 대해 김종구 과장은 "3개국과의 FTA를 패키지로 묶어서 사업과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대책확정 기간을 못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지난 6월 2일 이사회를 개최해 협회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토론회 등을 거쳐 대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우농가 특집 '도전 골든벨'에 도전하세요!

20일까지 참가신청 접수…추석전날 방영 예정

한우자조금은 KBS-1TV의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을 한우농가 특집으로 진행한다.

한우농가의 화합의 장 및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진행하는 이번 방송은 추석전날인 9월 7일 19시10분에 방송할 예정으로 한우농가 100명(참관객 200명)이 참여해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6월 20일까지이며, 전국 한우농가의 균등한 참여를 위해 각 도별 15명으로 제한(울산 · 제주는 각 5명)하며, 총 130명까지 신청을 받아 사전 인터뷰를 통해 100명을 선발한다. 또한 한우농가 및 한우 후계자만 신청가능하며,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단체 신청도 가능하다. 참가자 선발기준은 말솜씨나 장기가 뛰어나신 분, 사연이 있으신 분(감동, 재미유발), 상식이 풍부하신 분 등이며, 문제 성향은 기초 일반상식 및 한우관련 문제(5문항 이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녹화는 1박2일로 안성 소재 한경대학교 기숙사,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골든벨 1~3등에게는 상금이 수여되며 1등에게는 황금소가 경품으로 주어진다.

››› KBS 1TV 추석특집 도전 골든벨 참여안내

- ♠ **방송일시 :** 2014년 9월 7일, 19시 10분
- ♠ **참가자 모집 :** 5월 23일(금)~6월20일(금)까지
- ♠ **본 촬영 :** 8월 11일(월) 오후 1시 ~ 12일(화) 1박2일
- ♠ **참여대상 :** 한우농가 100명
- ♠ **사전 인터뷰 :** 7월 9일(수)
- ♠ **사전인터뷰 및 촬영장소 :** 한경대학교(경기 안성 소재)예정
- ♠ **진행절차**

각 시 · 도별 참가자 모집 → 각 시 · 도별 담당자 신청 서류 검토 → 신청서류 제출(팩스) *6.20(금) 17시까지 → 사전 인터뷰 *진행사항 안내 및 촬영인터뷰 대상자 선정 → 사전 촬영 *참가자 일부중 에피소드가 있는분 섭외 → 본 촬영 (1박 2일)

※ 본 촬영은 리허설 준비로 인해 1박 2일로 진행하며 참관객은 12일 참석

♠ **신청방법 :** 각 시군지부 및 도지회를 통한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검토
→ 한우자조금 사무국으로 이메일 혹은 팩스접수

※ 이메일 : mire1726@daum.net / F. 02-522-4314

※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요망

♠ **문의전화 :** 한우자조금 홍보마케팅부(02-522-3608/02-523-3608)

한우 소비가격 경쟁력 높이는

'한우114 직거래장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윤영탁 사무국장

한우는 우리민족과 함께해온 중요한 가축이다.

그리고 소고기 수입이 되기 전에는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한우를 건강유지를 위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랑하고 이용하여왔다.

그러나 국가 간 무역장벽이 철폐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우가 수입 소고기와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소고기등급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결과 품질에서는 세계수준의 소고기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소고기이력제의 도입과 판매장에서의 원산지 표시 등으로 소비자의 안심지수가 높아져 신뢰성에서도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가격인데 가격의 경쟁력은 수입가격이 인상되거나 한우의 생산비 및 유통비 절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있다. 수입가격은 많은 변수가 있어 예측하기 어려우나 분명한 사실은 한 · 미FTA, 한 · 호주FTA 등으로 향후에는 관세가 철폐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한우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 한계가 있어 점점 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유통비 절감이다.

우리나라의 소고기 유통구조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미 롯데 · 이마트 등 대형 소비자 판매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영 가공공장을 운영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점포 및 판매관리비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소비자의 니즈(Needs)는 분명하다. 안심할 수 있는 맛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사먹는 것이다.

한우자조금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한우고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해 오고 있고, 그것은 자조금 본연의 역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2년에 걸친 대대적 할인행사를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소 값 폭락을 저지하는데 노력하였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할인판매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할

인율에도 한계가 있어 항구적으로 유통의 거품을 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방법 중의 하나로 '한우114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한우114 온라인 직거래장터'는 산지에서 생산한 한우고기를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의 한우고기를 안방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한우114 온라인 직거래장터'에 참여 할 지역 브랜드를 공개 모집하였고 15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하였다. 우선 1차적으로 그 중 5개 업체를 선정하여 6월 중 시범판매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면 오픈할 계획이다.

'한우114 온라인 직거래장터'의 성공여부는 크게 3가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있다고 본다.

첫째는 오프라인보다 가격의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충분히 검토되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둘째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을 것인가이다.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브랜드는 소비자로부터 재 구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한우114 온라인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브랜드의 역할인데,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 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홍보다. 한우자조금은 한우의 우수성을 지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는 '한우114 온라인 직거래장터'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조금의 사업영역도 변화되어야 한다. 분명 '한우114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통한 한우의 가격경쟁력이 한우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생산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도시 일가 · 친지 · 친구 등에게 '한우114 온라인 직거래장터(www.hanwoo114.co.kr)'를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

한우자조금, 한우 할인몰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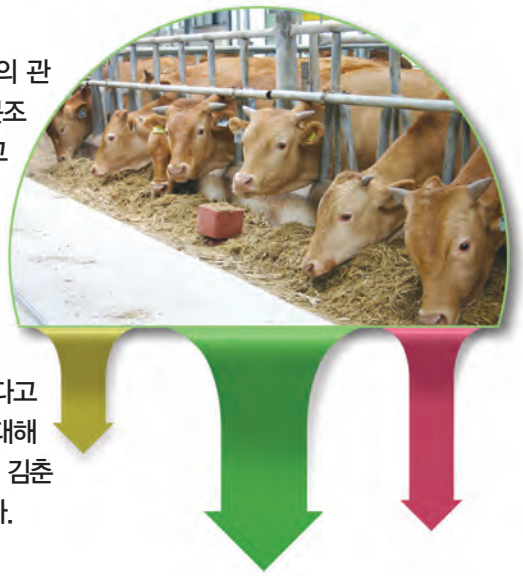
한우자조금은 연중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를 살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 '한우 할인몰'(www.hanwoo114.co.kr)을 열었다. 최대 7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과정을 대폭 축소하고 산지 직접 배송 등으로 유통마진을 줄임으로써 한우농가에게 수익 창출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것이다. 우선 '한우먹는날', 의성 '마늘소', 나주 '녹색한우', '영주한우', 상주 '명실상감한우' 등 한우자조금이 선별한 5개의 한우 브랜드를 입점했으며, 6월 중순부터 점차 브랜드를 늘려갈 예정이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할인몰 오픈을 기념해 특가 할인판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1차(5.26~6.1)와 2차(6.9~15) 총 두 차례에 걸쳐 1등급 500g 기준 불고기와 국거리 990원, 등심 4,990원 등 매일 다른 부위의 한우를 평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50명(1일 50명)에게 특가에 판매한다.

가격 하락·생산량 감소해도 일정수준 농가수입 보장

가축재해보험+가격변동위험 추가보장 특약
농가 수입안정·농축산물 수급안정효과 기대



최근 정부가 계획중인 '농업수입보장보험'에 대한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가의 70%는 농업 조수입이 불안정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78%가 가격불안정을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한우(비육우)를 비롯해 포도, 콩, 시설오이, 배추 등 6개 품목, 1,000여 농가 대상으로 1차 도상 연습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1차 도상 연습 품목을 포함해 벼, 마늘, 고구마, 시설토마토, 감귤 등의 품목을 추가해 약 1,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도상 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의미와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농업수입보장보험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 · 부안)으로부터 견해를 들어봤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이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수량×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감소분만큼을 보험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재해위험과 FTA 등 개방 확대로 농축산물 가격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는 농축산업 여건을 생각하면 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보장하는 재해보험과 함께 급격한 가격하락 위험을 관리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상연습을 통해 제도의 도입가능성, 도입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 내년부터 도입효과가 높은 2~3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 등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이 안정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농업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우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나

농식품부가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지난 3월 작성한 '한우비육우 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보험 상품은 현행 가축재해보험에 가격보장을 확장해 축산농가의 수입을 보장하는

형식으로 상품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즉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격변동위험을 추가로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한다면 수입보험의 운영을 보다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가축재해보험과 동일한 가축인 생후 만2개월 이상 한우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한우 수소(비육우)를 적용, 재해로 인한 가축의 손실은 보장하지 않으며 예정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만을 보장하는 방식을 주문했다.

가입마릿수에 가입자의 출고시점의 예상 중량인 가입중량과 지육율, 보장가격을 각각 곱하는 방식으로 보험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때 보장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따른 가격하락 위험을 계산할 수 있는 가격 요소와 가입 수량 산정을 위한 수량 요소가 필요하 다는 게 보험개발원의 견해다.

'농업수입보장보험'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

농식품부는 이번 도상연습을 통해 도입가능성 및 타당성을 분석해 재정당국과 협의 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정부가 50%를 지원, 지자체와 농가가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으로 농가 수입안정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100억원대의 예산으로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농가의 불확실한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입보장보험의 취지대로 농가소득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보장보험 가입 후 생산과잉 시 시장가격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인터뷰

객관적 축산농가 소득자료 DB 구축해야 예산확보가 사업 성패 결정

김춘진 국회의원

수입보장 보험설계의 핵심은 객관적인 농가의 소득자료 확보가 관건이다. 개별농가의 수입을 얼마나 실제수입에 가까우면서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농축산물은 재배농가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여 농가의 수입을 파악하기 어렵다. 한우의 경우 '쇠고기 이력제'를 통해 수입자료 확보가 가능해 도상연습 품목에 포함됐지만 여타 축산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다. 보상보험대상의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입보험에 가입해 수입변동에 대한 고민이 해소된 농가는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늘려 과잉생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수입보험은 재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고, 운용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 책정 예산으로 수입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예산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무허가·미신고축사 문제 '당면과제' 법개정…건폐율 상향조정·축사 적법화 요구

축산분야 규제개혁 TF 구성…2016년까지 규제 20% 줄인다

축산물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 가중, 축산 강대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여기에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악성 가축질병 등 최근 수년간 이같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 위생, 안전이란 이유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면서 축산업계를 옥죄고 있다. 한우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봤다.

규제 940건 중 272건이 축산분야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 시스템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 규제는 3월말 기준 81개 법령 및 행정규칙에 940건이 있으며, 축산분야 규제 건수는 272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축개량관련 등 축산법 규정이 41건, 동물의약품 28건, 수의사관련 27건, 말산업육성 17건, 동물보호 1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로 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이나 절차, 검사 · 인증 등에 관련된 규제가 많았으며, 특히 축산물위생검사나 가축분뇨 등과 같이 여러 부처 규제와 중첩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양한 분야의 법령을 운영하다보니 법령에 대한 지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축산인들로서는 현장에서 적용 법령을 이해키 어려워 민원 성격의 규제 건의가 많은 것도 축산부문 규제의 특성이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요구

축산업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과 관련된 규제를 꼽고 있다.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작업에 있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농가 생산 퇴 · 액비 기준 설정과, 무허가 · 미신고 배출시설(축사)의 사용중지명령 및 1억원 이하의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 · 미신고축사 문제는 축산업계가 풀어야할 당면과제다. 전체 축산농가 중 무허가 · 미신고 시설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임에도 환경부가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무허가 · 미신고 축사에 대

해 사육중단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축사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축사를 건축물이 아닌 축사시설로 인정해 축산법상 가축시설로 등재된 축사에 대해 적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처방수수료 및 진단료 부담 증가로 생산비 증가가 예상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의사 처방제의 전면 재검토와 비과세인 축산물을 취급하는 정육점형 식당의 부가가치세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로 목장경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농장은 목장 이전대책과 목장단위 분뇨처리 지원 방안을 수립해 주고, 목장이전 시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목장용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허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건축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후계자와 목장이전과 관련된 세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

2016년까지 축산분야 규제 20% 감축

이같은 축산업계의 요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별 특성에 따라 연차별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공정거래, 축산물 위생 및 안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농업인 복지, 농촌 환경보전 등 공익목적의 규제는 강화하되 6차 산업 활성화, 축산업 창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귀농 · 귀촌 등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내지 개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축산분야의 규제를 2016년까지 지금보다 20%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축산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축산관련 기관, 단체,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축산분야 규제개혁 T/F'를 구성 · 운영중이다. T/F에서는 주로 축산물 가공분야, 친환경 축산분야, 축산물 유통분야, 동물약품 및 방역분야, 말산업 육성 및 개량분야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부터 규제비용 총량제를 실시하며 향후 신설 · 강화되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또는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국민 공감 속에서 농축식품분야 특성을 감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경산우, 30개월 · 1등급을 목표로 비육해야
발정 제어는 12개월령 이후 적용 유리

한우 미경산 비육우 사양관리 및 경제성 연구

최근 한우 사육마릿수 조절과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성에 따른 요구로 미경산우 비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의 암소육 선호도는 거세우의 동일 등급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거세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85%에 반해 암소육은 50% 미만으로 경산암소의 경우 짧은 비육기간과 성숙도로 인해 고급육 생산이 힘든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은 저능력 한우 미경산우 비육우 사양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발표했다.

30개월 전후, 육질 1등급 이상을 목표로 설정

한우 미경산우 비육 시 거세우와 마찬가지로 비육단계별로 지속적인 영양공급만 유지한다면 고급육(육질 1등급이상)을 생산하는데 문제없지만 거세우에 비해 증체율이 낮고, 근내지방도 또한 거세우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암소 생리에 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미경산우 비육 시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성이다. 저능력암소의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생후 30개월 전후, 육질 1등급 이상을 목표로 설정해 사양관리를 해야 한다.

미경산우 비육 시 발정을 제어하려면 성성숙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12개월령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발정을 제어하지 않고 비육할 경우 생후 22개월령 이후에는 발정 스트레스가 완화되기 때문에 10개월간 사양관리가 중요하다.

한우 미경산 및 거세우의 경제성 비교

항목	미경산	거세우
조수입	5,332	6,028
경영비	4,012	4,909
밑소구입비	1,500	2,000
사료비	2,135	2,531
기타비	378	378
소득	1,319	1,118

미경산우의 출하시기 결정

거세우와 마찬가지로 생후 24개월령 이후 초음파 육질판정을 통해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유리하다. 1등급 출현을 목표로 출하시기를 결정해야 하며, 33개월령까지 비육할 경우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경산우의 경제성

미경산우는 거세우보다 육질 및 육량의 목표도달 시기가 늦어 비육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1일 사료섭취량이 적어 생산성(사료효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미경산우는 거세우에 비해 경락가격이 높고, 밑소 구입비가 낮아 수익성에 유리하나 도체중 및 육량등급에는 불리하다.

여름철 한우 고온스트레스 이렇게 줄이세요!

소화이용성 높은 원료 먹이고 사료조 청소 자주해야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송아지와 비육우의 고온스트레스를 낮추는 사양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비육우는 30 ℃ 이상이 되면 생산 환경 임계온도에 이르러 발육이 멈추게 되므로 근내지방 형성이 왕성한 비육중기에 있는 소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온기의 비육우는 비육중기부터 후기 사이의 더위 스트레스 줄이는 대책이 절실하다.

배합사료 : 조사료 급여비율 7 : 3 권장

비육말기의 소에게는 총가소화영양분(TDN)함량이 74% 이하의 사료를 먹인다. 사료섭취량을 높이기 위해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급여비율을 7:3으로 조절하고 자가 배합사료의 경우, 기호성이 높은 당밀이나 우지의 첨가량을 높이고 영양소 함량을 높여 섭취량 저하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방지한다. 여름철에는 사료, 사료조, 자동사료 급이 시설도 수시로 점검해 청결을 유지한다.

사료는 되도록 새벽, 저녁 또는 밤에 주고 조사료는 주로 저녁에 먹인다. 조사료는 5㎝로 짧게 썰어 주며, 질좋은 조사료를 준다. 또한 여름철 반추가 축용 코팅 비타민C 제제를 먹이면 스트레스가 줄어 사료섭취 저하방지 및 근내 지방 향상에 좋다.

방목 번식우, 소금 별도로 줘야

한편, 번식우는 되도록 양질의 조사료를 준다. 여름철 염분 섭취량 증가에 대비해 사료 내 염분함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방목을 하거나 풀을 많이 먹는 번식우는 소금을 별도로 줘야하고 비타민A, D, E 등을 첨가 · 보강한다. 산야초나 청초를 베어 먹일 경우 그늘에서 하루정도 헤쳐 놓아 말린 다음 먹인다. 송아지는 특히 변질된 사료를 먹거나 비를 맞으면 설사나 호흡기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며 질병이 발생하면 빨리 수의사를 불러 치료하는 것이 좋다.

축사주변 잡초 제거 · 살충제 살포

또한 축사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살충제를 살포한다. 하절기에 분만하는 가축은 분만전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고 후산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타민 E나 세레늄 제제를 분만 전 투여한다.

열사병으로 체온이 상승한 가축은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하고, 두부와 전신에 물을 뿌리거나, 해열제를 투여해 체온을 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반추가축에는 사용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발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료관리법과 그 외에 사료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용어의 정의 및 공정관리, 제조업 및 성분등록, 수입신고 및 사료검사, 관세추천 및 사후관리, HACCP(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 반려(애완) 동물 관리, 포장지 및 지대표시사항 등 기타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수록돼 있다.

Q 사료로서 제조 · 판매 · 사용이 금지된 것들은 무엇인가요

A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 동물용의약품 등이 허용기준 이상이거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며 성분등록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들도 해당됩니다. 또한 인체 또는 반추동물의 질병(BSE 등)이 우려되어 반추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된 동물성사료(동물성 단백질류, 동물성무기물류, 동물성유지류, 남은음식물 등)가 해당됩니다.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 · 수입 · 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 · 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Q 식품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국내에서 제조 및 유통되는 식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충족하고,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기준(사료공정서 별표 9)과 첨가 · 혼합 제한 사료 및 물질의 기준(사료공정서 별표 10)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 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사료의 기준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사료용으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현재 부적합 수입식품을 사료용 등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수입신고인 및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폐기

Q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사료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남은음식물에 해당되므로 반추가축(소 등)에게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나치게 많이 지나서 현저히 부패, 변질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나, 충분한 열처리 등을 통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등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 · 수입 · 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사료공정서 제21조(동물성단백질류 사료 등의 공정관리)

① 제4조에 따른 단미사료 중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습열기준 121℃에서 15분 이상 또는 115℃에서 35분 이상 열처리하거나 동등이상의 효력으로 열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건조의 방법으로 생산가능한 육포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남은음식물사료를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 · 처리하여야 하며, 가열 · 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사료 또는 이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 · 처리하여야 한다.

세월호 구조현장에 한우육포 전달

민간 잠수팀,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 전해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조인력의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5월 초 민간 잠수부 부식으로 한우육포 1만개를 전달했다. 이후 진도군 팽목항에서 민간 잠수팀 지원센터 김도헌 팀장은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이 보내 온 한우육포가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감사의 글을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홈페이지에 전했다. 한편 자조금은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현장에 한우사골곰탕 1,000명분을 전달하며 애통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다. 아래는 홈페이지에 전한 감사의 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도군 팽목항에서 민간 잠수팀 지원센터의 팀장인 김도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센터에서 여러 기관과 기업, 단체로부터 구호물자를 지원받아 세월호 사고현장에 물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바지선 및 200여 척에서 구조 및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는 UDT, SSU, 119특수구조단, 특전사, 해경, 해군 등의 잠수사분들께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입고, 먹고, 씻고, 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빨리 찾아오겠다는 일념으로 일일기준잠수량을 몇 배나 넘어서는 잠수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열량의 부식이라, 여태까지 피자와 치킨, 그리고 비타민 드링크 등을 공급해 왔습니다만, 인스턴트 식품은 열량은 높아도 금방 질리는 지라 보급하는 저희들이나 보급받는 잠수사 이하 장병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에서 보내주신 물품에 대한 구조장병들의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기름을 써야할 곳이 많으실 텐데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열심히 구조작업하고 있는 민, 경, 군 잠수팀들에게 귀한 물품을 보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가능한한 구조현장에서 원하는 요구를 파악하여 그 기호에 맞게 보내려고 하고 있기에 협회의 지원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쎄신 와중에도 나라에 생긴 큰일에 대한 염려와, 그 일을 수습하려는 민간 잠수팀, 해군·경 장병들을 격려 해 주시는 한우농가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마음속으로나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TV속 한우이야기

05.25 MBC 진짜사나이 최고의 전차팀을 선발하는 시합이 끝난 뒤 원기회복에 좋은 한우시식기회 제공, 군인들과 연예인들이 한우를 먹는 장면을 노출시킴으로써 저녁시간대 한우 취식을 유도했다.

청소년 한우 맛체험

6~8월 한우 도매가격·송아지 가격 전년보다 강세

[사육 전망]

6월과 9월 한 · 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6~7% 감소할 듯

◆ 송아지 가격 강세로 번식의향이 높아져 1~4월 정액 혈통증명 발급 건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11.8% 증가한 51만2,000스토로우였음

◆ 3~5월 도축증가와 송아지 생산 감소로 6월 한 · 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6.2% 감소한 288만 마리로 전망

◆ 6~8월 송아지 생산 잠재력이 낮아 9월 한 · 육우 사육마릿수 또한 전년 동월보다 6.9% 감소한 283만 마리로 전망

[수급 전망]

6~8월 도축 전년보다 1.8% 감소 전망

◆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향후 암소 출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6~8월 도축은 전년보다 1.8% 감소한 24만마리로 전망

◆ 국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6~8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보다 10% 증가한 6만 4,000톤으로 예상

[가격 전망]

6~8월 한우 도매가격과 송아지 가격 전년보다 강세 전망

◆ 5월 6~7개월령 암송아지 평균가격은 158만원, 수송아지 가격은 246만원이었음

◆ 6~8월 1등급 도매가격 14,000~16,000원 전망

◆ 한우도매가격은 추석 전에 일시적으로 전망치를 상회할 수 있으며, 송아지 부족으로 수송아지 가격 강세는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우 가격 전망

한우		6 ~ 8월	
		2013년	2014년
큰소(1등급)	산지(600kg)	448~527만원	503~575만원
	도매(지육kg)	12,475~14,656원	14,000~16,000원
수송아지(6~7개월)		185만원	240~270만원

5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구분			평년 ('09~'13)	2013년		2014년		대비(%)	
				4月(A)	5月(B)	4月(C)	5月(D)	C/A	D/B
도축마릿수(마리)			654,734	58,167	76,214	63,599	67,938	9.3	△10.9
경매마릿수(마리)			246,000	30,199	39,565	34,014	35,170	12.6	△11.1
도매시장 경락가격(원/kg) (수취가격, 천원/마리)	평균		14,167	11,946	11,439	13,779	13,892	15.3	21.4
	거세우		15,256	13,023	12,873	14,727	15,025	13.1	16.7
	비거세우		10,913	9,671	9,396	11,059	11,012	14.4	17.2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마리)	암소		4,442	3,425	3,203	4,117	4,132	20.2	29.0
	송아지	암	1,983	994	1,038	1,587	1,605	59.7	54.6
		수	2,124	1,754	1,814	2,391	2,473	36.3	36.3
불고기(1등급/kg)			33,287	32,519	30,530	32,088	32,850	△1.3	7.6
등심(1등급/kg)			64,477	58,442	59,750	60,409	61,910	3.4	3.6

* '13년 한우 비육우 생산비(5,585천원/600kg, KREI추정치), 경영비(4,470천원/600kg, KREI추정치)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한우농가 소득 추정('14. 5월 한우평균 도매가격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원/600kg)	경영비(B) (천원/600kg)	소득(A-B) (천원/600kg)
1++	18,318	6,562	4,470	2,092
1+	16,029	5,742		1,272
1	14,031	5,026		556
2	11,751	4,209		△261
3	10,009	3,585		△885

* 경영비 : '13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4,470천원/600kg, KREI추정치)

알아두면 유용한 SOS 긴급전화번호

일상생활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각종 긴급 · 돌발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죠? 이젠, 당황하지 마시고, SOS 긴급전화번호로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간첩, 범죄, 화재, 여러가지 상황시 보다 정확한 긴급전화번호를 알고 사용한다면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발췌 : 대한민국정부포털 www.korea.go.kr〉

SOS 긴급전화번호로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긴급서비스

118 사이버테러, 개인정보 침해	119 재난 구조 구급신고	112 범죄 신고
122 해양사고 신고	1366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1339 응급의료 약국안내
129 아동학대 노인돌봄	1332 금융관련 피해신고 (보이스피싱 등)	1337 응급의료 약국안내

생활정보서비스

132 법률구조상담	121 수도고장 신고	123 정전, 전기고장 신고
1330 관광정보 안내	1369 금융정보 조회	1333 교통정보 안내

공공 민원서비스

129 사회복지서비스 (희망의 전화)	1345 다문화가족 지원	1331 인권침해 상담
1350 고용 근로 상담, 신고	110 정부통합 민원서비스	1398 부정부패 신고

알려드립니다

한우송아지만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일선 지자체 조사·심의 거쳐 늦어도 12월까지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9일 올해 한우송아지, 수수, 감자, 고구마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한우송아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지난 5월 29일 개최하여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발동됐던 한우송아지의 경우 총 수입량이 30만491톤으로 기준(27만8,276톤)보다 초과했으며, 국내 가격은 기준가격 180만4,000원보다 9.3% 떨어진 163만6,000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불금 산정 시 한우송아지의 수입기여도는 31%로 결정, 직불금 지급 시 적용할 방침으로 조정계수 확정 후 지급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작년에도 한우에 24.4%의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한우협회에서는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한우농가의 반발을 샀기에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한우협회에서는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인해 피해를 받은 만큼 정부가 충분히 보상을 해야 하는데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축소시키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일선 지자체의 조사 · 심의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 지급할 방침으로 지급단가 및 예산소요액은 농가의 신청 후 총액을 파악한 뒤 11월경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애독자 퀴즈

한우농가의 많은 소식과 의견을 전하기 위해 독자코너를 신설합니다. 주제와 분야는 제한이 없으며 분량은 글(A4용지 10포인트로 2/3), 사진과 그림은 1개로 제한됩니다. 아래 주소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소식지에 게재 시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달 애독자 퀴즈입니다. **한우자조금은 연중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를 살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 '00 000'을 오픈했습니다. 유통단계를 대폭 줄여 한우농가에게는 수익창출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한우고기를 판매하고자 만든 이 온라인 장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8~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중앙로 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7-878 (독자코너 투고용 이메일 : 025251053@hanmail.net)

5월호 설문조사 당첨자

이형남(전남 보성군), 고주환(강원 정선군), 김휘곤(울산 북구), 권선미(경기 용인시), 이종관(경북 칠곡군), 최은주(전북 완주군)

2014년 한우농가 기술교육 안내

(한우자조금 지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전국 26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한우농가 기술교육」을 실시합니다.
- 「한우농가 기술교육」은 개별농가의 요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한 교육을 찾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명칭 : 「한우농가 기술교육」

교육과목 : 방역, 질병, 자율도태, HACCP, 정책, 경제 · 경영 · 유통, 번식, 영양, 사양, 시설, 가축개량, 인공수정, 고급육생산, 한우경영정보시스템 교육 등

교육기관 : 전국 9개도 26개 기관
(대학교, 국공립 · 농협 연구기관 및 농협중앙회(각 지역 본부 포함))

교육신청 : 농가는 여러 교육기관 중에서 전국 어느 곳이나 선택할 수 있음(지역불문)
※농가는 한우사업단, 한우협회에 교육 신청

교육기간 : 무박1일 교육, 1박2일 교육, 2박3일 교육 등.

교육비 : 한우자조금 지원 80%, 농가자부담 20%

교육안내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협회, 한우사업단,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한우농가기술교육 안내 : (전화)02-522-3606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http://www.hanwooboard.or.kr→'알림마당'
→'한우농가기술교육'→'한우농가기술교육현황'

한우사업단에 소속된 한우농가는 교육안내처로부터 교육과목과 일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신 후, 참가하고 싶은 교육(지역불문)을 선택하여 한우사업단 또는 한우협회에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4 한우홍보대사
송 소 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